

‘가정의 달 5월’ 온가족이 어디부터 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들를 만한 전시와 볼만한 공연 등이 풍성하게 열린다.

‘체험’을 위주로 미술 감상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전시들이 눈길을 불고 모처럼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내 찾아도 후회하지 않을 만한 문화행사가 꾸준하다.

◇그리고 만지고, 예술체험 = (서한국사립미술관협회) 마련한 ‘2012 뮤지엄 페스티벌 – 예술체험 그리고 놀이’는 가족과 함께 하는 예술체험 축제로, 5월 한 달 간 펼쳐지는 국내 최대 규모 미술관 축제다.

광주·전남에서는 ▲동구 국운미술관 ▲동구 무등현대미술관 ▲동구 우제길미술관

국내 최대규모 ‘2012 뮤지엄 페스티벌’ 예술체험 놀이

아이들 눈높이 전시·도립 어린이국악단 공연 등 풍성

▲동구 은암미술관 등 13개 사립미술관들이 참여해 각 미술관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전시를 열고 전시와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운미술관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가족’을 주제로 포장지·신문지·우표·잡지·사진 등의 재료를 활용해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등현대미술관은 5월 매주 토요일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증심사길 - 문화지도 그리기’ 행사를 진행한다.

우제길 미술관은 5일부터 매주 토요일 16명의 아동을 동반한 가족 참가자를 모집, ‘나도 의사 할아버지처럼-나만의 화첩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문 도슨트와 한국화 작품을 감상하고 명상의 시간을 갖는 한편, 나만의 화첩을 만들어 보는 순서

로 꾸며진다.

함평 잠월미술관을 찾는 가족들은 도예가 이상복 작가의 개인전 뿐만 아니라 작가와 직접 물레를 돌리고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사발을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함평 갯벌미술관에서는 ‘남도땅, 갯벌에 살다’라는 전시와 연계, 갯벌 생태와 기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진도 남진미술관에서는 매주 토·일요일 ‘한지 부채 만들고 오방색 한지로 꾸미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화순 다산미술관의 경우 ‘이 봄에 꽃그림이라도?’라는 소장품전을 계기로 자연에서

꽃 재료를 찾아 공동 작품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립미술관협회의 ‘미술관 찾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행사가 열리는 전국 미술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 방에 걸 그림 골라볼까=광주 북구 시안갤러리에서 3일부터 30일까지 여는 ‘우리 아이방에 그림 한 점, Pick Up!’ 전은 아이를 눈높이에 맞춘 작품들로 전시관이 채워져 아이들과 들을만한 전시다.

25명의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에도 가격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데,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그림들이어서 아이들 방에 걸어 두는 것도 좋다.

◇공연장-신나는 ‘음악 놀이터’=광주문화재단이 2일 오후 양주중종체육관에서 여는 ‘너의 재능을 보여줘!-아이 좋아’ 행사는

■ 2012 뮤지엄 페스티벌 예술체험 그리고 놀이

▲ 광주

미술관명·홈페이지	전시명	프로그램	일시	연락처
국운미술관 www.kwamocca.com	국중호 展 ‘생명 그리고 순환’	생활속 친의체험	5.1~5.31 매주 토	062-232-7335
우제길미술관 www.woogart.co.kr	아침식탁 展	증심사길- 문화지도 그리기	4.28~5.26 매주 토	062-223-6677
남진미술관 www.dasangart.com	Light 展	우리들의 빛	5.5~5.26 매주 토, 일	062-224-6601
화순미술관 www.dahanart.com	이매리의 Painting 展	꽃글씨 공방- ‘문자도’로 이름 꾸미기	5.1~5.20 매주 토	062-231-5299
여제미술관 www.ujam.org	소장품 展	나도 의사 할아버지처럼	5.5~5.19 매주 토	062-222-3040

▲ 전남

미술관명·홈페이지	전시명	프로그램	일시	연락처
함평 갯벌미술관 www.zamworl.com	돌머리-남도 땅, 갯벌에 살다	돌머리 갯벌 그림 으로 본다	5.1~5.31 매주 수	061-322-0866
진도 남진미술관 www.daedam.co.kr	이삼복 초대전 ‘사발이야기’	‘껌이 담긴 사발이야기’	5.1~5.31 매주 토	070-8872-6718
화순 다산미술관 www.dasanart.com	“규방공예&월트” 하승자 작품전	한지 부채 만들고 오방색 한지로 꾸미기	5.1~5.31 매주 토, 일	061-543-0777
여제미술관 www.ujongart.com	소장품전 ‘이 봄에 꽃그림이라도?’	마음 꽃 그리고 놀이	5.1~5.31 매주 토	061-371-3443
고흥 도화원미술관 www.dowhahun.com	도화원 12주년 중경작가 초대전 “봄圖多里”	신비로운 마블링 세계	5.1~5.31 매주 수, 토	061-832-1333
영암 이천미술관 www.achen.co.kr	“헝기로운 땅.” 展	“밭이 저래 맑아저려” (웃음치료)	5.5	061-472-9220
보성 우종미술관 www.ujongart.com	자연을 노래하는 시간 -Slow&Deep	비람놀이	5.10~5.18 매주 목, 금	061-804-1091

(한국시립미술관협회)

사직공원도 갈래요? 5~8일 ‘예술로 물든 사직공원의 봄’ 페스티벌

어린이날과 어버이날로 이어지는 5월 5일~8일 사직공원 예술 동물원도 문을 연다.

▲아트주와 광주문화재단, 문화TV, 재능기부센터, 양립동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주관해 ‘예술로 물든 사직공원의 봄’ 페스티벌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보다 훨씬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우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각, 설치작품 등으로 변신한 ‘예술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동물·사람·자연을 주제로 공모를 거쳐 선정된 예술동물들이 사직공원 곳곳에 전시돼 20여년 전 동물원의 추억을 맛볼 수 있다. 손대고 두드리거나 올라탈 수 있는 작품이어서 체험의 묘미도 느낄 수 있다.

사직공원을 불거리와 즐길 거리 가득한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도 이날 완공, 주민들과 만난다. 주최측은 사직공원 내 5개 장소에 조성한 ▲스텝 ▲기슭 ▲빈집 ▲흔

적 ▲흐르는 풍경 등의 설치 작품들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또 양립동 오웬기념관, 이장우 기록, 선교사 묘역 등을 둘러보는 양립동 둘레길 탐방 프로그램에 걸거리 공연, 댄스, 오페라나 공연 등 시민과 즐길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이 기간 공원 일대에서는 공예협동조합 소속 공예가들의 예술 작품도 판매된다. 문의 070-4240-0976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2011 ‘아트주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작품.

〈광주일보 자료사진〉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www.geumsoojang.com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0,000원 /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보 약 홍 삼 은

복교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농성역
북교당
한약방
새우리병원
광송간도로
세우리병원
화재방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전시장에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6월 10일까지 ‘봄의 교향곡’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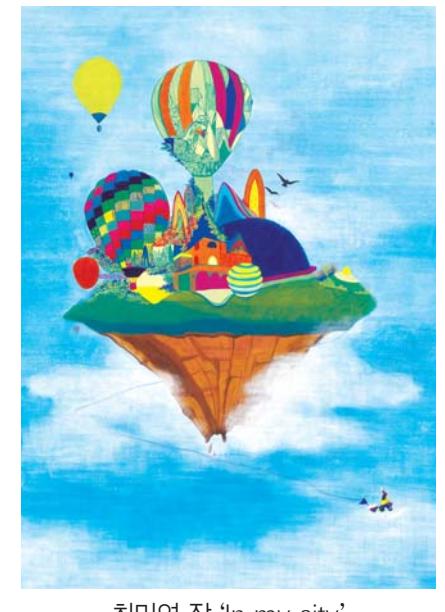
전시장에 봄이 한창이다. 계절의 여왕 오월의 봄꽃과 생명력 넘치는 청춘 등 봄 기운이 가득하다.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은 6월 10일까지 ‘봄의 교향곡’ 전을 연다. ‘봄’, ‘꽃’, ‘생명’, ‘오월’, ‘청춘’, ‘약동’ 등 6개 주제로 나뉘 대학을 각 출연한 젊은 작가부터 중진, 원로작가까지 14명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봄의 교향곡’을 듣는 것처럼 주제별로 관람이 가능하다.

매화나무 위에서 날고 있는 설태훈씨의 ‘날아라 꽃’이나 나무조각을 활용한 송진화씨의 ‘또다시 봄’ 등은 봄 색상에서, ‘노마디 레지던시’에 참여해 남극을 다녀온 김주연씨의 작품은 생명 색상에서 둘러볼 수 있다.

김씨는 작품을 통해 독특한 설치작업을 통해 씨앗이 발芽해 크고 소멸하는 과정을 전시 기간 내내 보여준다.

허달용씨의 ‘봄바람’, 이주한씨의 ‘봄날은 간다’ 등의 작품은 생명력 강하고 활력 있는 계절의 여왕 오월의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최미연 작 ‘In my city’

부대행사로 세계 단편 애니메이션 수상작들도 상영하고 있다. 문의 062-613-7133.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클래식 봄나들이… 깊은 감동의 무대

금호아트홀, 내일 김다솔·권혁주 콘서트

임동혁·신현수·조성진…

올 봄 광주를 다녀간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의 공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졌다.

유·스퀘어문

화관은 ‘2012금호아트홀 스페



권혁주



김다솔

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이는 김다솔(23)은 16세대 라이프 히 국립음대 유학한 후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설리스트 시리즈’ 두번째 콘서트로 젊은 연주자들이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와 피아니스트 김다솔의 유모 무대를 마련했다. 2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19세 때 칼 닐센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권혁주(27)는 200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입지를 굳혔다. 권씨는 제2회 금호음악인상(2006)을 수상했으며 올해 안양대학교 관현악과 교수로 임용돼 후

다. 슈만 국제음악콩쿠르, 제네바 국제 콩쿠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김씨는 지난해 프랑스 애피날 국제 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연주 페포토리는 라